

일단 주인공 용광로에다 나오는 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25면에서 계속

세가 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이런 거는 아예 집어내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나라는 존재, 오만과 자만, 아상 이런 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살필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면 인과응보를 면할 수 있나요?

문)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꼭 지는 대로 받는다는 게 기도를 하면 인과응보를 면할 수도 있는 건지요?

답) 나는 항상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을 믿고 빌고 기도하고, 또는 형상을 믿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법당일 가든지, 강당일 가든지 형상은 네 형상과 똑같이 둘 아니게 봐라. 그 마음이 둘 아니다. 네 형상과 둘 아니고 마음도 둘 아니고 법 또한 둘 아니다. 그러니 동굴에, 내 마음과 모든 걸 한데 합쳐서 일 배를 올리더라도 동굴에 일 배를 지극하게 올리고, 나올 때 다시 주인공에다 맡기고 나오니라.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몸뚱이 속에도 헤어질 수 없는 생명들이 있죠?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요? 모두가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남'으로다가 하나로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主人)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주인공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기 님을, 즉 말하자면 과거에 수없이 살아오고 형성시킨 자기 자랑스러운 입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본래는. 그런 건데 기독교에서나 가톨릭교에서나 모두, 나도 가톨릭교에 좀 있어 봤습니다마는 내가 기껏 잘못해 놓고 고해 성사 할 때는 신부님한테 가서 다 읊고 돌아서죠. 그러곤 편안하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나도 그래 봤으니깐요. 그게 말이나 빌 법한 일입니까? 에누리가 없는 게 세상살이예요. 삶이예요, 모두가. 우연히도 없어요. 부부가 만나도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에 나가 보세요. 전부 끼리끼리 놓여 있죠? 상점에다 끼리끼리 놓여 있지 뒤섞여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끼리끼리 차원으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따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할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내가 망해도 '네가 잘못해서, 양망겨려서 재수가 없어서 안됐다.' 이런 소린 아예 하지 마라 이 소리죠. 모두가 자기 차원에 따라서 자

기 탓이니가 자기가 아무리 잘못어도, 자기가 돈을 벌어도, 또 망했다 하더라도 자기 탓이예요. 자기가 없다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 탓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법당엘 가거나 강당에 가면 기도하면서 그냥 '하느님 아버지시여!' 또 불당에 가면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관세음보살이시여! 지장보살이시여!' 뭐 온갖 이름을 다 찾죠. 그러나 그게 없는 이름은 아닙니다. 다 있어요. 우리가 아파서 주인공에다 맡기면 약사가 되거든요, 약사보살. 진짜 자기가 약사보살이 돼요. 또 자기가 가난하고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답답할 때에 거기다 맡기면 관세음이 되죠, 관세음보살이. 명이 짧아서 어쩌나 그리고 걱정될 때는 칠성부처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주인공한테 맡기면 내 주인공으로 하여금 통신이 돼서 그 칠성부처가 책임을 맡죠. 참 묘합니다. 그러니까 칠성부처가 그 명을 다루죠.

그리고 또 누구나가 차원대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으면 자기가 산 대로, 행동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모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로 나왔다면 개 대접밖에 못 받죠. 우리가 살아 보지 않아요? 개 새끼는 개 새끼지 뭐 사람의 새끼나 이러죠. 뱀이라면 뱀의 대접밖에 못 받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대접을 받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한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공부하는 모든 걸 무효로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잘되고 잘못되는 거를 다 그냥 무효를 시키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 공부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빌어서, 빌어먹는다는 말이 있죠, 왜? 빌어서 뭐를 조금 얻어서 쓴다 하더라도 고거 없어도 되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하시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나한테 좀더 마음을 크게 내 주셔서 해 주시오." 이러죠. 그러나 나는 다 생각이 있습니다. 본인을 가르치는 데는 그렇게 "그러세요." 이래서는 절대 안 되죠. 본인이, 본인이 직접 하게 만들면서 해 줘야죠, 재주를 가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더러 "관하시면, 그대의 주인공

에 관하시면 되죠. 열심히 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또 마음이 편안해야 되겠으니가. 지금 집안에서 콩 튀듯 팔 튀듯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면 나라도 말한마디라도 편안하게 해 줘야죠.

어떤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모든 걸 은행으로 뺏기고 인제는 집까지 뺏기게 돼서 거리로 애들하고 나서게 된다고 하면서 그냥 땅바닥에, 내가 길에 나왔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랬을까요? 보잘것도 없는 고깃덩어리, 중한데 뭐 볼 게 있다고 거기다가, 길바닥에서 절을 하겠습니까? 남의 맘을 들었지만 자신은 그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라는 거를 다 버린 겁니다. 아주, 아시겠습니까? 자기라는 거, 자기 위신이라는 거, 양심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다 몽땅 뭉개 그냥 다 버린 거예요. 죽어 버린 거예요.

나라는 아상, 오만과 자만 이런 거를 항상 자기 마음속에서 살필 수 있어야 그것이 나를 밝히는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이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어차피 죽으면 그렇게 죽어야지.' 그러고선 왜 땅에서 이력하시느냐고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해 놓고는 열심히 관하시라고, 그래도 관하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저 관하시면서 부지런히 튀시라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얼마 있더니 "아이, 집은 건지게 됐습니다." 또 얼마 있더니 "아유, 그 공장 하던 것도 되찾게 됐습니다." 그래요. 나는 어떻게 찾게 됐느냐 이런 것도 묻고 싶지 않아요. 죽게 되는 식구를 건지기만 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뭘 물어요? 그렇게 좋다면 나도 좋은 거죠. 이유를 물을 필요도 없죠. 그 이유를 묻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이 정신계의 무의 법이 그렇게 귀중하고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 법이 바로 50%에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할 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예요. 다 권리를 가지고 다 지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죄가 없다는 사실, 독둑 짙을 하고 사기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죄가 없다. 모르니까 그런 거지, 알면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건, 보시면 보는 대로 그냥 있는 게 없죠? 강도질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서 벌써 과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그 강도질을 했다면 되야 하죠? 그런데 되오기 전에 입력을 없애 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요. 되오기 전에 입력이 되니까. 다른 입력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서 비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맡겨 놓는다면 인과응보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니와 자주 다투게 됩니다

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을 통하여 스님 법문과 인연이 되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니에게 바라는 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언니와 자주 다투게 되고 그래서 또 속상해하고 하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소에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지, 지금 대변이 마려워 죽겠는데 대변 마려운 생각뿐이지 거기에 무슨, 간접적으로 뭐가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 말입니다. 들어가서 똥을 꼭 싸 놓고 봐야 그때 인제 뭐가 다른 것도 생각나고 그러지, 그 외에는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아무 생각없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 주인공에서 모든 것을 다, 어떠한 거든지 자기발전소에도 대가만 하면 다 그냥 타 버리니까. 나쁜 것도 타 버리고 좋은 것은 승화되고. 보세요. 용광로에다가 모든 것을 집어넣으니까 자동적으로 쇠가 생산돼서 나가죠? 낱은 작업만 잘한다면 생산돼서 나가는 거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은 나와라 똑딱 하면 은 나올 것이고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 나올 것인데 구태어 왜 걱정을 하고 지냈습니까?

이 세상에 한번 나서 캠퍼를 왔다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질 것을 알면 남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한 질 나려 왔다가 웬 싸움입니까, 부질없이. 또 다 놓면 소꿉장난하다가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와 같은 건데 그거 왜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부라도, 자식과 부모라도, 형제간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괴로운 것은 거기가 맞고, 서로서로를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러운 행동을 해 준다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상통해서 서로 한 방에 불이 들어오듯, 그렇게 에너지의 불이 당겨진 단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니 좋고 화목하니 좋고, 일이 성립이 잘되니 좋고 애고가 없어지니 좋고, 유전성이 없어지니 좋고, 이거는 모든 일거일동이 다 좋아지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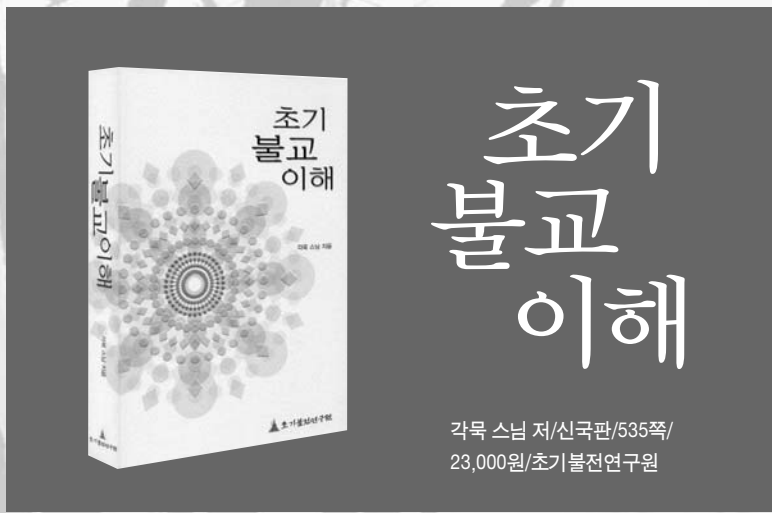
하여튼 그저 다스리지 않고 속상하는 대로 타락 내뱉으면 뺄는 대로 그대로 속에서도 그대로 내뱉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속의 그 의식들이 그대로 따르니까요.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들어 있으니까 내 안에만 들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균성도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나가서 끌고 들어오는 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집을 비워 놔두면 자손들이 친구들하고 막 들어와서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는 거와 같이 말입니다. 이 집안에 주인이 없다면 그렇듯 애깁니다. 집안에 주인이 없다고 그냥 못 의식들을 끌고 들어와서 막 난장을 벌이고 나가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집도 주인이 없이 아마 일 년이고 이태고 십 년이고 그냥 놔둬 보십시오. 거미줄이 슬고 썩어들어 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장자인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 의 기동들을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름을 믿을 것도 못 되고 허공을 믿을 것도 못 됩니다.

훈자 왔다가 훈자 쳄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역겹지 않습니까? 쳄바퀴에서 좀 훨훨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주인공 용광로에다 나오는 대로 집어넣어 보세요. 무조건 그렇게 해 보신다면 그런 의식들이 녹아지면서 알 바가 생길 것입니다.



초기불교에 대한 개론서이자 본격적인 해설서



- 이 책은,
- ① 한역경전이 아닌, 빠알리 '삼장'을 토대로 한 초기불교 개론서이다.
 - ② 빠알리 '경장'에서도 4부 니까야를 토대로 하였다. 부처님의 원용과 직계 제자들의 육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 ③ 특히 초기불교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심도 깊게 다룬 경들을 모은 '상우따 니까야'를 중심으로 두었다.
 - ④ 초기불교에 대한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라 초기불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본격적인 초기불교 교리서 혹은 초기불교 해설서이다.
 - ⑤ 철저히 '청정도론'과 '아비달마 길라잡이'와 주석서 문헌들을 의지하여 필자의 주관에만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하버드대 출신의 눈부른 수행자 현각 스님을 백척간두의 세계로 이끈 스승, 봉철 노선사의 생동감있고 심심미묘한 법문

수개월, 수년이 지나는 동안 나는 스승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소백산 작은 암자에서 매일 아침 몇 시간씩 집중적으로 참선을 하였습니다. 봉철 큰스님은 정말이지 수행을 위해 나를 절벽 끝까지 몰아붙이셨습니다. 큰스님께선 '좋다, 나쁘다' '성스럽다, 속되다' '맛다, 틀리다', 그리고 '옳다, 그르다' 라는 나의 차별심에 대해 참구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봉철 큰스님의 가르침과 수행행, 그리고 본분사本分事에 대해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현각 스님)

노선사가 들려주는 불법의 정수와 대자유인의 삶

극락도 불태워 버려라

김상백 엮고 씀/사륙판양장 252쪽/9,500원/운주사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적 개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